

경찰 관리미제사건 463만건

전체 미제사건 중 10건 중 6건 이상 10년 넘게 방치... 수사기록관리 부실 문제 심각
전북지역도 미제사건 12만건 넘어...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 정해 기록 정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되지 않은 ‘관리미제사건’이 전국적으로 463만 건을 넘어서면서 장기 방치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체 미제사건 중 10건 중 6건 이상이 1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수사 기록 관리의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년 이상 경과된 사건도 49만5,018건(10.7%)에 달했다.

수사 부서 기능별로 미제사건 유형을 분석하면, 강력 사건(40.3%, 186만 5,128건)과 형사 사건(37.5%, 173만 5,297건)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77.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수사(경제·사이버) 사건은 2020년 12만2,417건에서 2025년 40만5,236건으로 5년 새 세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전북지역도 미제사건 12만건 넘어

전북 지역 역시 관리미제사건 누적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경찰청의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9만3,941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8월)에는 12만3,596건을 기록하며 심각한 누적 상태를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이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과 수사 현황의 부단 완화가 병행될 수 있도록 각 사·도청별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 전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국산 자율차,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달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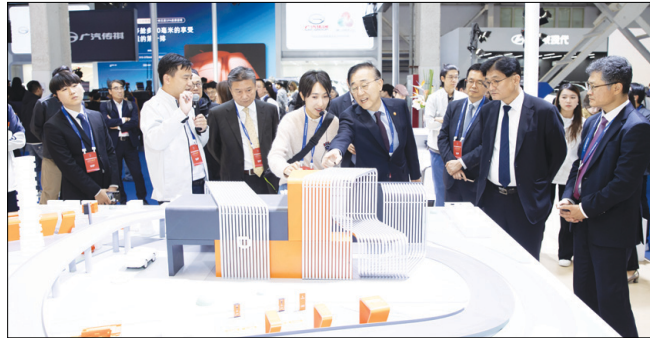
김윤덕 국토부장관, 중국 베이징 WICV 개막식 참석... 정부 주요인사와 정책방향 논의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컨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에 참석했다.

WICV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 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이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 글로벌 완성차 업체, ICT 기업, 학계·연구기관 등 세계 각국에서 참여했다.

이날 김 장관은 WICV에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청사에서 리처청 공업 정보화부 부장과 면담해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중국을 세계 자동차 생산시장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강국으로 전가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도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WICV에 참석해 신기술들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중국은 복잡한 인프라, 교통환경을 갖춘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을 학습할 수 있도록 1,500여대의 로보택시를 활용한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베이징 등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실증환경, 운영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세계 각국은 미래 전략

산업인 자율주행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미·중 대비 자율주행 기술수준이 낮아 선진국들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해외 선진국과의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희성 기자

농진청 품질관리평가과, 혁신도시 이전 확정

민주 윤준병 의원, 농진청 수도권 잔류부서 전북 이전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잔류 부서 일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이끌어내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거뒀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본청과 대부분의 부서를 전북혁신도시로 옮겼지만, 일부 부서는 여전히 수원에 남아 있었다.

현재 수도권에 잔류 중인 부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일부)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 연구센터 △품질관리평가과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식품 관련 기능 통합과 전북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품질관리평가과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농촌진흥청이



이전 추진까지 이끌어냈다. 그는 “수도권 회귀는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줄곧 전북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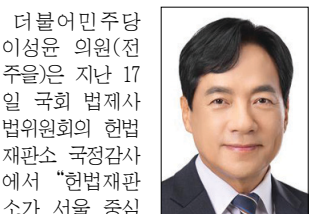


‘제19회 전북과학축전’ 개막식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19회 전북과학축전’ 개막식이 개최된 가운데 내빈과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테크노파크 제공>

“헌법재판소 전주로 이전해야”

민주 이성운 의원, 현재 국감서... “헌법정신 회복”



더불어민주당 민주 이성운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구성도 서울대 출신 판사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사회적 약자나 지방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재판관 64명 중 77%가 서울대 출신, 84%가 판사 출신, 88%가 남성으로 구성됐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서울 중심적 인사 구조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과 국민 대표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4년 현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언급하며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역 법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다”며 “이 결정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서울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부산 국민은 409km, 전주 시민은 250km를 이동해야 한다. 현재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 5천만 국민이 감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는 동학혁명의 반의세·반봉건 정신과 3·1운동의 법통이 이어지는 헌법정신의 고향”이라며 “헌재가 전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의 근본정신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도, 전 직원 대상

생성형 AI 역량 강화 교육

정부 국정과제 기조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기조에 발맞춰 도청과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관영 도지사가 강조한 ‘AI 대전환 시대에 공직자가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행정 전 과정에서 AI 기반의 업무 혁신과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직급과 직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급 이상 간부는 ‘AI로 여는 정책결정 혁신’을 주제로 공공데이터 분석과 조직 목표관리 등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고, 5급 팀장급은 ‘AI 기반 팀 혁신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AI 도구 활용법을 학습한다.

또한 6급 이하 실무자는 ‘AI 실무 레벨업! 행정업무 효율 200%’를 목표로 행정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기업·출연기관 관리자와 실무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기관 간 균형 있는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다.

도는 이번 교육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최신 AI 기술 동향을 반영한 연 2회 이상 정례 교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두가 AI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전북형 AI 행정모델’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오늘 도의회 임시회 개회... 27일까지

내년 예산 편성 위한 동의안·조례안 등 처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0일 제422회 임시회를 열고 27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속 의미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와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과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동의안 85건 등 접수된 의안 11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0일 개회식 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 활동을 펼친다.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만호 기자

Wonder+Land

2025 Wonkwang University

축! 전주매일 창간 35주년

WONKWANG UNIVERSITY

원하는대로 원더랜드 원광대학교

2024년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선정대학

Since 2026 원광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통합

국내최초 대학연제 30년 운영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ipsi.wku.ac.kr

정시모집 | 2025. 12. 29.(월) ~ 12. 31.(수)
편입모집 | 2025. 12. 08.(월) ~ 12. 12.(금)

신인상 혜택

친구와 함께 입학하면
어머님무상학급!
+ 각과 100만원 지급
(생활비성 장학금, 광역기열 / 자율전공학부 입학성)

2년제 학과 학생들을 위한
2U 장학금(유망장학금)!
+ 첫 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단, 국가장학금은 신청 필수)

신인상은 계속! 입사 혜택!
종학버스 무료혜택까지!
+ 2인1실 최신허 기숙사 약 4,000여명 수용
+ 통학버스 1년 무료(전주, 완주, 군산, 김제, 부안, 정읍, 계룡, 논산, D진, 세종)
+ 광영-KTX, 동탄-SRT 타고
익산까지 약 1시간